

■ 野 통합정당 지도부 선출 앞두고 정치권 이합집산

“공천보험 들어야” 벌써부터 충성 경쟁

광주·전남 정치권도 특정 후보에 줄서기

박지원 지지 의원들 전대 파동후 거리두기

통합 정당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도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통합 정당의 유력 당권 주자 후보에 줄서기가 활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이 통합 정당 출범으로 유동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입지자들은 내년 지도부 경선 구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광주 국회의원 3~4명은 유력 당권주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캠프에 자신들의 보좌진을 파견하고 있다.

명분으로는 한명숙 전 총리와와의 인연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내년 총선 공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 모 국회의원의 핵심 관계자는 “당권 도전에 나설 예정인 한 전 총리 측에서 도움을 요청, 보좌관을 파견한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의 인연이 있어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전남 일부 국회의원들과 총선 입지

자들도 유력 당권 주자인 한 전 총리의 측근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사들은 전남 동부와 서부, 중부를 각각 나눠 맡으면서 벌써부터 충성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정당의 지도부 입성 가능성이 높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도 내년 총선 입지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입지 전당대회 파동으로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현 구도대로 지도부 선출이 이뤄진다면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지도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박 전 원내대표가 광주·전남 총선 공천 구도에 미치는 영향력

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 모 국회의원들은 “현재 구도를 감안하면 통합 정당 지도부 경선에서 박 전 원내대표가 못해도 2~3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박 전 원내대표가 통합 지도부에서 민주당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박 전 원내대표와 밀착 관계를 보였던 일부 국회의원들은 입지 전대 파동 이후, 점차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어 ‘비열한 정치관’의 현실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부 입지자들은 시민 통합 당권 주자들과의 관계 형성에 나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합 정당 출범으로 현재의 민주당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enda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민심의 요구가 크다는 점에서 시민통합당 당권 주자를 지원하면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입지자들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과의 물밑 접촉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안 원장이 사실상 새로운 정치의 아이콘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지지 선언만 얻어낸다고 해도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9대 총선 예비후보등록 시작

19대 총선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13일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북갑·북을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임내현·이형석·최경환(오른쪽부터) 예비후보가 나란히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201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절대평가는 개별학생이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측정해 성취도를 평가하는 고교 내신제다.

교육부가 13일 내놓은 방안은 지난 5월의 시안과 큰 틀에서 차이는 없지만 성취도 6단계 중 졸업이 안될 수도 있어 ‘낙제등급’으로 불린 ‘F’단계의 전면 도입은 일단 유보됐다.

◇절대평가 어떻게 하나 =2014년부터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교육과정 에 맞춰 개발되는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 A-B-C-D-E와 낙제에 해당하는 F(Fail)등 6단계 성취도를 준다.

‘성적부풀리기’ 방지가 성패 관전

초중고 ‘수·우·미·양·가’ 표기 사라져

고교는 현재 9등급 석차등급 표기를 없애고 6단계 성취도를 A-B-C-D-E-F로 구분해 학생부에 기재한다. 중학교의 경우 현재도 절대평가이지만 상대평가적 요소인 석차를 가미한 형태다. 내년부터는 수·우·미·양·가 성적 표기방식을 A-B-C-D-E-F로 바꾸고 석차를 삭제한다.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병기하는 것은 고교와 같다.

성취도별 성취율은 ▲90% 이상이 A ▲90~80%는 B ▲80~70%는 C

▲70~60%는 D ▲60~40%는 E ▲40% 미만은 F단계다.

초등학교가 학생부가 이미 서술형으로 바뀐 만큼 중학교에서도 수·우·미·양·가가 A-B-C-D-E-F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초중고에서 ‘수우미양가’라는 내신 표기는 사라지게 된다.

◇성적 부풀리기 방지가 관건 = 성적 부풀리기 방지책은 6단계 성취도 이외에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병기하도록한 것이 첫째다. 또 교과목별로 성취도별 기준 성취율, 성

취도별 성적분포 현황 등을 초중고 정보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과연 철저히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4년 당시 절대평가제가 폐지되고 상대평가제로 전환한 것도 무더기 성적부풀리기가 사회문제가 되면서였다. 수·우·미·양·가와 석차를 주는 절대평가 아래에서 학교가 시험을 쉽게 내고 동석차를 양산해 학생들이 내신성적을 불신, 입학전형에서 내신 반영률을 줄이는 등 혼란이 컸다.

/연협뉴스

쏘울·스포티지R 등 50만대 생산 체제 광주 생산·수출 지형 바꿨다

회고 2011

- 1 안철수 현상
- 2 '도가니' 충격
- 3 기아차 질주
- 4 영육의 5·18
- 5 아권통합
- 6 부실대학 퇴출
- 7 조선대 총장 선거 파문
- 8 무상급식과 복지 재정난
- 9 풍성한 국제행사
- 10 가거도 방파제 붕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질주에 힘입어 광주가 생산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달 이미 연간 생산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보다 두 달 가까이 앞선 기록이며, 2년 연속 신기록 달성이다.

올들어 지난 12일까지 광주공장에서는 46만2000여대를 생산했다. 연말까지 올해 사업목표인 48만3000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9월 광주공장 노사가 50만대 생산체제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가동된 데 힘입은 것이다.

특히 기아차 노사가 이룬 2년 연속 무분규 성과도 신기록 행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공장은 내년부터 생산 질주에 가속페달을 더 세계 뽀를 계획이다.

최근 기아차는 광주공장 생산규모를 2013년부터 올해보다 20% 이상 늘려 연간 62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공장은 1500억원을 들여 스포티지R과 쏘울을 생산하는 2공장과 사원주차장 일부에 생산시설을 증축하는 공사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 2013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티지R과 쏘울의 수요 폭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광주공장의 연간 62만대 생산규모는 기아차 최대 공장인 경기도 화성공장(62만대)의 생산규모와 맞먹는 것으로, 광주공장이 화성공장과 더불어 기아차를 대표하는 공장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009년 32만여대 생산에서 쏘울과 스포티지R의 잇따른 성공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4년만에 2배 가까운 성장을 하게 된다. 연간 매출도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성장에 힘입어 광주경제는 생산과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해 생산

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도 지난 9월 말 101억 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지난해보다 3개월이나 앞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출 14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게 된다.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 실적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울산 713억 달러, 인천 210억 달러, 부산 123억 달러에 이어 네번째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에 있어서는 인천 36.8%, 대구 33.4%에 이은 30.4%로 세번째다.

특히 광주보다 경제규모(GDP)면에서 2.5배, 사업체 수는 2.6배인 부산시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비슷한 규모의 대구의 38억 달러, 대전의 28억 달러에 비해서는 3~4배에 이른다.

다만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데다 지역 대표 건설사들도 부정부패로 제재 등으로 힘겨운 한해를 보내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업자득이라 드릴 말씀이...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7-151-1번지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 : 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따뜻한 겨울 휴가! 무안-세부 전세기
(12/29~1/22 총8회)

실속	세부 비리조트 4일 (목요일출발)	₩899,000~
	5일 (일요일출발)	₩949,000~
	세부시티 메리엇호텔 4일 (목요일출발)	₩929,000~
	5일 (일요일출발)	₩949,000~
골프	세부 모벤티리조트 4일 (목요일출발)	₩1,249,000~
	5일 (일요일출발)	₩1,349,000~
	세부 상그릴라리조트 4일 (목요일출발)	₩1,399,000~
	5일 (일요일출발)	₩1,54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자유시간지 중식 또는 석식,선택경비,기사&가이드 팀

겨울에 떠나는 중국여행!!

무안-북경 5일 ₩599,000~

불포함 : 유류할증료, 단체비자, 기사&가이드팀

무안-상해,항산,항주 ₩67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단체비자, 기사&가이드팀

카멜리아로 떠나는 겨울온천 즐기기!!

구중산 빌라형통나무콘도

4월 ₩349,000 출발일 12/18,21,25 불포함: 기사&가이드팀 (₩20,000), 광주-부산 수송

일본 전통료칸 스지유 마을 온천 즐기기

4월 ₩489,000 출발일 12/21,1/3,5 불포함: 기사&가이드팀 (₩20,000), 광주-부산 수송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템보스

4월 ₩549,000 출발일 12/21,1/3,5,10 불포함: 기사&가이드팀 (₩20,000), 광주-부산 수송

골프 향공으로 떠나는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4월 ₩969,000 출발일 12/26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목포-제주도 ₩139,000원~

장흥-제주도 ₩159,000원~

불포함:기사&가이드팀 (₩10,000원), 수송비 (광주-목포&장흥)

광주-제주도 ₩259,000원~

불포함:기사&가이드팀 (₩10,000원) 후원: 아트랜드, 퍼시픽랜드

세계 자연문화 유산이 빛나는 앙코르와 캄보디아!!

무안-씨엠립 전세기 (12/24~ 2/28 총 20회)

씨엠립 3박4일 [준특급.토요일출발] ₩799,000~

씨엠립 3박5일 [준특급.화요일출발] ₩799,000~

불포함:유류세 (137,000원),캄보디아비자 (\$20),선택관광,가이드및기사팀 (\$30)

씨엠립 3박4일 [준특급.토요일출발] ₩1,160,000~

씨엠립 3박5일 [준특급.화요일출발] ₩1,160,000~

불포함:유류세 (137,000원),캄보디아비자 (\$20),선택관광,가이드및기사팀 (\$30)

골프시-탈림중식3회,캐디팁 (18홀-5\$),공동경비 (\$10)

활기찬 표정과 열정이 넘치는 곳!!

무안-마카오·홍콩 전세기 (12/26~1/23 총 9회)

4월 홍콩/마카오 (금요일출발) ₩849,000~

4월 홍콩/마카오/심천 (금요일출발) ₩899,000~

5월 홍콩/마카오/심천 (월요일출발) ₩849,000~

5월 홍콩/마카오/심천/주해(온천)(월요일출발) ₩89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선택관광, 개인비자

골프 4월 주해 골프 (54H) (금요일출발) ₩1,249,000~

5월 주해 골프 (54H) (월요일출발) ₩1,25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캐디팁, 전통카 1인 사용시 비용, 개인비자,

가이드/기사팀, 클럽중식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2003-1호

*29월 영업보통보험 가입 / 여행보험 가입업체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 버스, 전지

*공동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여행), 1인, 국내항공 5인, 관광진흥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점 (단, 기사/가이드 통상,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인원만 상용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